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③	5	④
6	①	7	②	8	③	9	①	10	②
11	①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①	20	⑤
21	⑤	22	②	23	⑤	24	④	25	③
26	①	27	①	28	⑤	29	⑤	30	②
31	⑤	32	①	33	④	34	①	35	②
36	④	37	③	38	③	39	⑤	40	①
41	③	42	②	43	②	44	②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조선의 왕실 의례인 종묘 제례에서 공연된 종묘 제례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자는 먼저 종묘 제례악의 개념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종묘 제례악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종묘 제례악의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 위해 종묘 제례악의 악기와 연주, 그리고 춤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발표의 내용과 순서를 청중이 예측할 수 있도록 발표자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자신이 어떤 내용과 순서로 발표할 것인지를 안내하고 있다. 종묘 제례악의 악기와 연주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다음, 춤에 반영된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한 부분이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② 발표의 중간 부분에는 종묘 제례악의 악기와 연주, 그리고 춤에 드러난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발표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자는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였으나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⑤ 본문에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은 드러나 있지 않다. 본문의 질문들은 발표자가 청중에게 자료를 보고 추측하게 하거나, 자료에서 내용 이해에 필요한 부분을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 체험하기를 권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1>은 종묘 제례악에 사용된 악기 중 축과 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축과 어는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 악기이다. 축은 네모난 절구통처럼 생긴 악기로 방망이를 잡고 아래로 두드려 연주하며, 어는 옆드린 호랑이 모양의 악기로, 채로 호랑이의 머리를 치거나 등을 긁어 연주하였다. <자료 2>는 종묘 제례악의 공연 장면을 담고 있는 오향전제반차도의 일부이다. 음려가 연주된 상월대와 양률이 연주된 하월대가 ㉠과 ㉡로 제시되어 있으며, 무인들의 모습이 ㉢로 제시되어 있다. <자료 3>은 현대의 종묘대제 포스터로, 현대의 종묘대제에서도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자료 3>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종묘대제’라는 표현을 통해 종합 예술로서의 종묘 제례악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과 어는 발표에서 그 모양과 연주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축과 어가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자료를 보여 주며 축과 어의 모양과 연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1>은 축과 어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② 발표자는 자료를 보여 주며 상월대와 하월대의 위치와 음양의 조화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자료 2>는 종묘 제례악의 공연 장면을 담고 있으므로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이루어진 음양의 조화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③ 발표자는 자료를 보여 주며 현재도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종묘에서 종묘대제가 열리고 있으며, 현대의 종묘대제에서도 종묘 제례악이 공연됨을 알려 주고 있다. <자료 3>은 현대의 종묘대제 포스터로,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는 행사인 종묘대제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 종묘 제례악이 공연되는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소개하는 데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청자 1은 발표에서 설명한 악기 외에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자 3은 발표에서 설명한 종묘 제례악과 자신이 알고 있던 문묘 제례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자 1과 청자 3은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청자 1은 종묘 제례악 공연을 보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자 2는 문무와 무무가 왜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지 발표자가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따라서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발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자 3은 제례악 중에는 종묘 제례악 외에 문묘 제례악도 있다고 음악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청자 3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인 종묘 제례악과 관련 있는 문묘 제례악을 떠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발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학생 2’가 글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자, ‘학생 3’이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학생 3’이 앞서 논의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 1’은 교지 담당 선생님께서 교지의 건강 상식 코너에 실을 글을 써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교지에 실을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은 ㉠에서 회의 안건을 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학생 2’가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냐고 묻자, ‘학생 3’은 전문 잡지의 기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2’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④ ‘학생 1’이 학생들의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인을 설명하자고 제안하자 ‘학생 2’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 2’는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⑤ ‘학생 1’이 척추 질환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자고 하자, ‘학생 2’가 그보다는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5. [출제의도]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학생 2’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하자, ‘학생 3’은 글의 시작 부분에서 척추 질환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생 3’이 ‘학생 2’의 제안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 3’이 독감을 글감으로 삼아 글을 쓰자고 하자 ‘학생 2’는 학생들이 독감 예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롭게 알려 줄 것이 없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 1’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자고 제안하였다.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자는 ‘학생 1’의 제안에 대해 ‘학생 3’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 3’은 척추 건강에 관한 정보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나)에서 척추 질환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나)의 3문단에서는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척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척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책을 볼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척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7. [출제의도] 조건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척추가 건강해야 신체적 성장이 원활해지고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척추 건강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게 앉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자고 하면서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척추를 ‘우리 몸의 보배’라고 하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나)에서는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 산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 게임 산업이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게임 산업을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게임 중독세란 게임 중독에 대한 책임 부담의 일환으로 게임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언급하여 게임 중독세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 게임 중독세는 게임 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자는 것이라며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 게임 중독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게임 중독세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9. [출제의도]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을 쓴다.

[A]에서는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에 게임 중독세를 물리

는 것은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게임 중독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며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도,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A]에 대해 반박한다면,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업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되면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B]의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으로, '고친 글'에는 삭제되어 있다. '고친 글'에는 '2010년 7.4조 원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B]의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문장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으나, '고친 글'의 '2010년 7.4조 원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019년에는 12.5조 원에 달한다.'는 문장은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없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을 이해한다.

'잘 입다'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면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 [잘립따]가 되고, '값 매기다'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면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 [감매기다]가 된다. 따라서 ㄱ과 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이다. 이러한 교체가 일어나는 예는 '책 넣는다[챙넌는다]'이다.

[오답풀이] ② '좋은 약[조:은약]'에서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난다. ③ '잘한 일[잘한닐]'에서는 첨가가 일어난다. ④ '슬픈 얘기[슬픈내기]'에서는 첨가가 일어난다. ⑤ '먼 옛날[먼:넌날]'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다.

12. [출제의도] 안은문장에서 관형절과 명사절을 이해한다.

④ ㉔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고,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 있다.

[오답풀이] ① ㉑에는 주어 생략된 관형절인 '약속 시간에 늦은'이 있고, 명사절은 없다. ② ㉒에는 관형절이 없고, 주어로 쓰인 명사절인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있다. ③ ㉓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인 '아버지께서 주신'이 있고, 명사절은 없다. ⑤ ㉕에는 관형절이 없고,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인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이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의 형성을 이해한다.

'굵은소금'은 형용사 '굵다'의 활용형 '굵은'과 명사 '소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오답풀이] ① '새해'는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③ '산나물'은 명사 '산'과 명사 '나물'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④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과 명사 '박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⑤ '어린아이'는 형용사 '어리다'의 활용형 '어린'과 명사 '아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14.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놓였다'는 '놓이다'의 어간 '놓이-'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은 어간 '하-'에 결합한다.

[오답풀이] ① '먹는다'에서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자란다'에서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⑤ '꿘다'에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㉔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㉕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을 결합한 것이다. ㉖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더-'를 결합한 것이다. ㉗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㉘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리-'를 결합한 것이다.

[16~21] (사회) 이준구, 「재정학」

이 글은 조세 부담에서의 공평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납세 부담액인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때 세율은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인 한계 세율을 의미한다. 세율 구조는 과세 표준에 대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밀의 균등 희생 원리는 누진 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런데 밀이 균등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기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고,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있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법을 파악한다.

조세와 관련하여 과세 표준, 한계 세율, 평균 세율, 실효 세율 등 여러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공평한 조세 부담을 위한 밀의 균등 희생 원리를 언급하면서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조세의 본질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조세 부과 효율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 역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조세 행정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까닭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진 세율 구조란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풀이] ① 평균 세율은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 세율은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보다는 과세 이전 총소득이 더 크다. 따라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② 1문단에서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율 구조에 대한 정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따라서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전의 총효용에서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 즉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은 GH/GO가 아니라 GHIJ/GOKJ가 된다. 또 을의 세액이 AB라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은 AB/AO가 아니라 ABCD/AOKD가 된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갑과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인 GHIJ/GOKJ와 ABCD/AOKD가 동일해야 균등한 희생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각 개인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갑의 희생의 절대적 크기는 GHIJ가 되고, 을의 세액이 AB라면 을의 희생의 절대적 크기는 ABCD가 된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두 면적이 같아야 균등한 희생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 된다면, 즉 한계 효용의 크기가 같게 된다면 갑의 세액인 GH와 을의 세액인 AB가 같아야 면적 GHIJ와 면적 ABCD가 같게 된다.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은 과세 이후에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있어 동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 갑의 세액이 GH라면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갑의 한계 효용은 HI이다. 을에게도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해야 하므로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9.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오답풀이] ② ㉑은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㉒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③ ㉓은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는다는 내용 역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㉔은 동일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㉕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㉑의 내용과 반대되는 의

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가)는 세율 10%를 적용한 비례 세율 구조, (나)는 세율 30%를 적용한 비례 세율 구조, (다)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구조이다. (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 표준 100만 원의 세율은 10%이고 과세 표준 200만 원의 세율은 15%, 과세 표준 300만 원의 세율은 20%이므로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 (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율이 동일한 반면,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이 낮다.

[오답풀이]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과세 표준에 세율을 동일하게 30%씩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역진 세율 구조가 아니라 누진 세율 구조이다. ③ (가)는 비례 세율 구조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나) 역시 비례 세율 구조로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④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는 (가), (나)이다. (가), (나)는 비례 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성립'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이다.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는 '진보'이다.

[22~26] (고시 복합) (가) 윤선도, 「견회요」, (나) 홍성민, 「마환우설」

(가) 윤선도, 「견회요」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광해군에게 권신인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벌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총 5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는 나라와 임금을 근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제목인 '견회요'는 '시름을 달래는 노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대의 권력자를 탄핵하던 젊은 윤선도의 강직한 성격과 신념,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 홍성민, 「마환우설」

이 작품은 작가인 홍성민이 1591년 정철의 당인으로 몰려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고전 산문이다. 작가가 유배지에 도착한 후 가진 것이 없어 굶을 처지에 놓이자 유배지의 주민이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굶주림을 면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자 작가는 먼 길을 동행하며 함께 고생한 말을 차마 팔 수 없다고 대답한다. 아마도 작가는 유배된 자신의 처지와 연결하여 주인인 자신이 말을 저버리는 것이 괴로웠던 것 같다. 이에 누군가가 작가를 우월하다고 탓하며 천지 만물은 원래 정해진 주인이 없으니 말에게 신의를 지키는 데 연연하지 말고 굶주림을 면하라고 깨우쳤다. 작가는 이 말에 수긍했으나 유배지에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제목인 '마환우설'은 '말을 소로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26번 문항 <보기 2>에 제시된 '무염관속설'의 제목을 풀이하면 '소금을 바꾸어 곡식을 사다.'란 의미이다. 이 작품도 작가가 부령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고전 산문인데, 북방의 유배지에서 상업을 통해 생계를 도모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료가 된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의 경우 '분별할 줄 이시랴', '내라 하여 모를손가' 등을 통해, (나)의 경우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해가 되겠는가?' 등을 통해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서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에 현실의 부정적 측면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작품 속 대상의 기능을 파악한다.

㉔는 화자의 행동에 대해 임에게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말하는 대상이다. 즉 화자를 포함해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다. ㉕는 말에 대한 신의를 강조하는 글쓴이에게 말을 팔아 소로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존재이다. ㉖의 충고로 인해 글쓴이는 '나는 그제야 피땀 깨달았지만'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④ ㉔는 화자의 행동에 대해 임에게 언급하는 대상이지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는 아니다. ㉕는 말을 저버릴 수 없다는 글쓴이의 판단에 대해 우월하다고 비판하는 존재이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㉔은 유배를 당한 후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사대부인 자신이 마치 장사꾼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글쓴이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으로 강등되어 바뀐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은 길게 뻗은 산의 속성과 멀리 흐르는 물의 속성을 통해 화자가 그리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㉕의 '외기리기'는 유배지에서 외롭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㉖은 충과 효가 합일되는 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확대하여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시냇물이 입을 향한 화자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른다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그 밧기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로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제4수의 '맑고 맑고 하고 하고'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한다.

<보기 2>에 글쓴이가 오랑캐와의 매매를 통해 생계를 도모하는 과정이 나타나지만, 그곳 거주민들이 이 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② [A]에서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다'는, <보기 2>에서는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굶주림을 모면하는 방법을 글쓴이에게 조언하는 주민이 등장하고 있다. ③ [A]의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보기 2>의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30] (기술) 박주미, 「이산 수학」

컴퓨터는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데이터를 표현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를 1워드라고 한다. 4비트의 컴퓨터로 양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면 +1은 0001, +2는 0010, +3은 0011이다. 음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부호화 절댓값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산값이 부정확하고, 0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이 있다. 1의 보수법은 1의 보수를 사용하여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며,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1의 보수법은 계산값이 정확하지만 0이 0000과 1111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1의 보수에 다시 1을 더하는 '2의 보수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2의 보수법에서 -1은 1111, -2는 1110, -3은 1101이며, 0은 항상 0000으로 표현된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1문단에서,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은 0을 0000과 1000으로 표현하여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0을 0000과 1000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③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 3문단에서 1의 보수법, 4문단에서 2의 보수법을 설명하였다. ④ 1문단에서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라고 대답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부호화 절댓값으로 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는 1로, 데이터 비트는 정수의 절댓값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은 1001, -2는 1010, -3은 1011이 된다. 반면 1의 보수법으로 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는 1로, 데이터 비트는 정수의 절댓값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은 1110, -2는 1101, -3은 1100이 된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데이터 비트가 서로 다르다.

[오답풀이] ①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의 경우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에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비트는 3개이다. ③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는 1이다. ④ 부호화 절

댓값은 계산값이 부정확한 반면, 1의 보수법은 계산값이 정확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나)의 경우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4의 절댓값인 4를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대한 1의 보수 011에 1을 더한 후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가)의 경우 0100+1000이므로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가)의 경우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의 보수가 활용된다. (나)의 경우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의 보수를 구한 다음, 다시 1을 더할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1의 보수가 활용될 것이다. ③ (가)의 4는 양의 정수이므로 데이터 비트는 이진수 100으로 표시된다. (나)의 -4는 2의 보수법으로 데이터 비트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구하면 -4의 절댓값 4를 이진수로 표현한 100에 대한 1의 보수 011에 1을 더한 100이 된다. ④ -3-4를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1101+1100이므로 계산값이 11001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2의 보수법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린다고 하였으므로 1001이 된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4비트를 1위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1의 보수법으로 0은 +0인 0000, -0인 1111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1111의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여 2의 보수를 구하면 10000이 되고, 초과된 비트를 버리면 0000이 되어 2의 보수법에서는 0이 0000으로만 표현된다.

[31~35] (과학) 정창영 외, 『마취 통증 의학』

통증은 조직 손상에 대해 방어적 작용을 하는 감각의 일종이다. 통증 자극은 Aδ 섬유와 C 섬유에 의해 전달된다. Aδ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는 날카롭고 쏘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끼게 하고 통증이 일어난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끼게 한다. 통각 수용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1차 신경 섬유와 2차 신경 섬유를 따라 전도되어 대뇌로 전달된다. 통증 신호는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들어가 통증을 느끼게 하고, 망상체와 시상 하부 등 뇌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대뇌 변연계로 전달되어 자율 신경과 내분비계를 자극하여 통증으로 인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한편 망상체에서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 섬유 말단에서는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에 있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서브스틴스 P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 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1문단에서 감각 적응 현상은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되는 것이고, 통각 수용기에는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통각 수용기가 감각 적응 현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Aδ 섬유는 직경이 크고 전도 속도가 빠르며, C 섬유는 직경이 작고 전도 속도가 느리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통각 수용기는 피부에 가장 많이 피부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확인하기 쉽지만, 통각 수용기가 많지 않은 내장 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망상체에서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으로 뻗어 있는 신경 섬유 말단에서 엔도르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같은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Aδ 섬유에는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

도 자극에 반응하는 통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고, C 섬유에도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에 반응하는 통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2문단에서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1차 신경 섬유와 2차 신경 섬유는 척수에서 서로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Aδ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날카롭고 쏘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낀다고 했고, C 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통증 신호는 대뇌 변연계로 전달되어 자율 신경과 내분비계를 자극하여 통증으로 인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은 1차 신경 섬유 말단에서 분비된다고 했고, 4문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 서브스틴스 P는 1차 신경 섬유 말단에서 분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3문단에서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칼슘 이온으로 인해 대뇌 피질로 통증 신호의 전달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NMDA 수용체에 의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까지 전달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AMPA 수용체와 NMDA 수용체는 2차 신경 섬유에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글루탐산은 1차 신경 섬유 말단에서 분비되어 AMPA 수용체와 결합하여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NMDA 수용체는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AMPA 수용체가 글루탐산과 결합하여 활성화되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고 했고, AMPA 수용체에 의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뒤이어 NMDA 수용체도 활성화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1문단에서 통각 수용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신경 말단이라고 했고, <보기>에서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역치를 낮추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여 자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엔도르핀은 1차 신경 섬유의 말단에 있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통증 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고, <보기>에서 모르핀은 엔도르핀의 분자 구조와 유사하여 아편 수용체와 잘 결합한다고 했으므로 모르핀은 아편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한다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문맥적 의미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로, ㉡의 '일어났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잠에서 깨어나다.'의 의미이다. ③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의 의미이다. ④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의미이다. ⑤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의 의미이다.

[36~38] (현대소설) 윤홍길, 『묘지 근처』

이 작품은 『소라단 가는 길』이라는 작품집에 실린 11편의 연작 소설 중 하나이다. 이 연작 소설은 환갑을 목전에 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저마다 겪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돌아가며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묘지 근처」는 '유만재'라는 인물이 겪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다.

할머니와 어린 '나'는 밤마다 집 앞을 지나며 울부짖는 절름발이 사내가 '둘째 삼촌'을 데려갈 저승사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할머니와 '나'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매일 밤 그와 맞서며 적대감을 키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인 주호를 따라 시립 병원에 가서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게 된다. '나'는 다리를 잃은 그의 모습과 귀에 익은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가 매일 밤 집 앞을 지나가던 '저승사자'라고 믿게 된다. 며칠 후 다시 집 앞을 지나며 울부짖는 사내와 대면을 하게 된 '나'는 '저승사자'가 시립 병원의 그 사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결국 할머니는 해토머리까지 '저승사자'로부터 아들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뜨게 된다. 해토머리가 온 어느 날 그토록 기다렸던 삼촌은 결국 '저승사자'와 같은 상이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전쟁의 비극성을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 다각적으로 전달한다.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신체의 손상을 입게 된 인물이 겪는 아픔과 가족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인물의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인식의 혼란을 느끼는 어린 인물의 모습까지 진실하게 그려지고 있다.

36.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할머니는 '저승사자'로부터 전쟁에 간 아들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저승사자'에 맞서다 먼저 눈을 감게 된다. 그러나 정작 '저승사자'로 불린 그 사내는 애초에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간청에 따라 할머니의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 준다. 따라서 ㉠이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는 '귀에 익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매일 밤 집 앞을 지나며 울부짖던 '저승사자'를 떠올렸다. ② '상대방 울부짖음'에 마주 울부짖는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저승사자와 맞서겠다는 할머니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③ 할머니가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나'의 모습은 저승사자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이 '나'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⑤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나'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가 공동묘지 그 너머에 그득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 사건은 세계에 대한 '나'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3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A]에서 '기형의 그 흉측스런 오른쪽 뺨'이나 '어쩐지 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으로 느껴졌다.' 등은 [B]의 '둘째 삼촌이 나무로 된 보조 장구를 양쪽 겨드랑이에 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둘째 삼촌의 오른쪽 뺨 부위를 일삼아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야만 했다.' 등과 연결되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사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삼촌이 그토록 멀리하고자 했던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상황은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집 앞에서 울부짖던 '저승사자'가 병원에서 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 사내와 대면함으로써 알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 '저승사자'에 대한 경계

심을 풀지 않고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나'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길거리를 누비는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은,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청년'이 '나라에 몸 바친 나를 필요 알고!'라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전쟁에 나가 희생한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과격할 말과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할머니'가 상이군인을 '저승사자'로 대하며 '병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할머니'의 집착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⑤ 다리를 잃은 한 인물을 두고 '주호'는 '상이군인', '나'는 '저승사자'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 속에서 대상에 대한 두 어린 아이들의 인식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39~42] (고전소설) 작가 미상, 「김인향전」

계모 모티프를 기반으로 혼사 장애 모티프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모가 전처의 딸들을 모해하여 전처소생인 인향과 인함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 이후 인향과 인함이 원혼으로 고을의 부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결국 계모의 죄가 밝혀지고 원한을 풀게 된다. 그리고 인향은 죽기 전에 혼약을 맺었던 한림 유성윤의 도움으로 인함과 함께 재생하여 유성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은 작품 구성의 측면에서 '장화홍련전'과 상당한 친연성을 갖고 있지만 등장인물의 구성이나 갈등의 원인, 계모가 전처 자식을 모해하는 과정, 그리고 사건의 해결 과정은 같지 않다. 무엇보다 두 작품을 구성하는 모티프들에 차이가 있으며, 이 모티프들의 배열로 인해 생성되는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인향의 재생 과정은 환상적인 것이나, 결혼은 정혼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루어진다. 정혼자의 존재가 예비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짜임새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작품의 남녀 주인공인 김인향과 유성윤은 서로를 믿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 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행동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인간의 상호 믿음과 진실성을 중시하는 시각은 애정 소설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계모형 소설이지만 애정 소설의 특징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인향이 한림에게 하는 말을 보면, 한림이 자신을 위한 제문에서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 덕 귀신이라 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한림이 인향이 죽었음에도 자신과 연분을 맺은 사람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한림이 심천동에 찾아가 읽는 제문에서도 한림은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동락으로 지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한림이 제문을 통해 인향과의 연분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옷을 지은 인향의 솜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한림이다. ② 인형은 한림과 함께 심천동에 갔으며, 인향과 인함이 재생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③ 한림은 꿈에서 인향과 만나 회생수를 받은 후, 자신의 부친에게 사연을 고한 후에 인향의 재생을 위해 제물을 차려 심천동에 갔다. ④ 한림과 함께 심천동에 간 법사들은 하늘에 축수하며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고 있다. 이는 인향의 회생을 위한 것이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한림은 회생수를 갖고 심천동에 가서 인향의 묘전에 제물을 차려 놓고 분향 재배한 후 제문을 읽은 다음,

다시 제물을 차려 묘전에 벌여 놓고 재배한 후 축문을 읽었다. 이 축문에서 한림은 액운이 자신의 죄이니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인향의 회생을 바라는 한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인향이 성주를 통해 원수를 갚고 이미 계모에 대한 원한을 모두 풀었을 때이다. 따라서 한림이 인향에게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 남아 있는 인향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향의 혼인의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한림은 인향이 반드시 자신을 위해 의복을 지어 놓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향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한림은 회생수를 갖고 심천동에 가서 제문과 축문을 통해 인향과의 연분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향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 준다. ④ 한림은 인향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모에 의해 인향이 죽은 비극적 사건이 회생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한림과 인향이 혼인을 하고 있다. 이는 계모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사건의 해결과 혼사 장애의 극복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⑤ 인향은 한림에게 계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향이 죽은 것은 한림과 인향이 혼인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인향과 계모 간의 갈등이 혼사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1. [출제의도]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회생수를 주고 있다. 이때 한림이 받은 회생수는 인향이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를 인향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인향은 한림이 가련한 혼백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고 있다. ② ㉠에서 인향은 의지할 곳도 없고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었던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에서 인향은 한림의 정성으로 하늘이 감동하고 자신을 측은히 여기어 환생하게 해 주었다는 말을 한림에게 하고 있다. ⑤ ㉠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자신의 재생을 위해 하늘에 축수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는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재생을 위해 한림이 해야 하는 일을 일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배경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한림은 인향이 준 회생수를 갖고 제물을 준비하여 심천동으로 간다. 이때 낙락장송이 희색을 띠어 한림을 반기는 듯하고, 두견새가 한림을 부르는 듯하고, 비금주수가 모두 입을 보고 환영하는 듯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한림이 인향을 회생시켜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낙락장송, 두견새, 비금주수'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연물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중심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③ ㉠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 성격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④ ㉠에서 한림은 심천동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시간적 배경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⑤ ㉠은 공간적 배경이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심천동은 현실 세계의 공간이다.

[43~45] (현대시) (가) 김현승, 「오월의 환회」, (나) 이기철,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가) 김현승, 「오월의 환회」
이 작품은 오월의 신록의 아름다움을 '그늘'의 이미지

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그들은 실상은 밝음의 이미지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밝음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신의 은총인 밝음과 빛은 그늘에 가득히 차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상태이다. 신록의 아름다움이 있는 공간인 이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화자는 고단한 삶의 여정을 멈추고 한때나마 쉬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 이기철, 「벚꽃 그늘에 앉아 보렴」

이 작품은 일상이 주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일상의 굴레를 벗어 놓고 '벚꽃 그늘'에서 위안과 휴식을 경험하라고 한다. '벚꽃 그늘'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공간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화자는 삶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가진 이 공간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그늘'의 반복은 '그늘'이 '밝음'과 대립하지 않고, '밝음'을 더욱 환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는 존재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나)에서 '벚꽃 그늘 아래', '벗어 놓고', '앉아 보렴' 등의 반복은 '벚꽃 그늘'이 일상에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어인 '그늘'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에서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는' '빛'이 신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 '그늘'과 '밝음'이 대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그늘'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고, (가)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늘'이 '밝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형상을 입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그늘'은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 (가)의 '이갈나무'의 '아래'에서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그늘'은 안식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나)의 '그늘'이 깨끗하고 순수한 곳이라고 했고, (나)에서 '벚꽃 그늘처럼 청정하게'라고 했으므로 '벚꽃 그늘'이 깨끗하고 순수한 곳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나)의 '그늘'이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으므로, (나)에서 '우리 삶이 '넉넉하고 싱싱해'진다는 것은 '벚꽃 그늘'에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의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은 '새의 날개'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속성을 '무겁고 불편한' 일상과 연결 지어 이해했을 때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에서 '눈물'은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므로,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의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는 '밝음'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기쁨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의 '햇살처럼 쨍쨍한 땀뭍'은 일상의 굴레를 벗고 그늘에 앉기 위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⑤ ㉠의 '더 걸어야 닿는'은 일상의 공간인 '집'으로 가는 양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